

병기 T1 성문암 30예의 임상적 고찰

연세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김광문 · 김영호 · 최홍식
박성수* · 이승문 · 김명상

성문암은 후두암중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으며, 병기 T1의 경우 방사선혹은 수술적 치료로 예후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1986년 12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병기 T1 성문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한 후, 1년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빈도, 치료방법, 결과등을 분석하였다.

- 1) 남녀비는 29 : 1이며, 60대에 가장 호발하였다.
- 2) T1a와 T1b의 비는 2.3 : 1이며, 전례에서 임파절 및 원격전이 는 없었다.
- 3) 병리소견은 전례가 편평상피암이었고, 분화가 잘 되어있었던 예가 13예이었고, 중간 분화도가 17예이었다.
- 4) 초기치료로 27례에서 방사선 치료, 3례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며 재발률은 각각 25.9%, 33.3%이었다.
- 5) 치료후 재발까지의 기간은 평균 8.6개월로, 전례에서 원발부 재발이었으며 1례에서 경부재발이 동반되었다.
- 6) 5년 생존률은 81.5%이었다.

경구개암과 연구개암의 비교연구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이종호*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저자들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본원을 방문

하여 경구개암으로 진단받은 25례와 연구개암으로 진단받은 39례를 후향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경구개암의 발생은 40대, 50대, 60대간에 별차이가 없었고, 남녀의 발생도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구개암은 60대가 15례, 50대가 12례로 대부분이었고, 남자가 33례로 여자보다 많았다. 조직병리학적 소견상 경구개암은 선양양성암종 8례, 편평세포암종 6례, 악성혼합종 3례, 악성 흑색종 3례, 점액표피양암종 3례 등 다양하였으나, 연구개암은 편평상피암종이 31례로 대부분이었다.

초진시 병기별 분류는 경구개암은 1기 2례, 2기 3례, 3기 4례, 4기 10례였고, 연구개암은 1기 4례, 2기 7례, 3기 3례, 4기 14례로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경구개암에서 수술을 초치료로 시행한 것은 14례,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것이 4례였고, 연구개암에서는 수술을 초치료로 시행한 것이 15례,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것이 8례였다. 치료후 경구개암 예에서는 원발부재발 4례, 경부재발 1례, 원격전이 1례가 있었고, 연구개암 예에서는 원발부재발 6례, 경부재발 1례가 있었다.

안와 신경섬유종의 분류와 치료

한양대학교 성형외과, 신경외과

최희윤* · 김영수

신경섬유종은 상염색체 우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발적인(sporadic) 유전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특별한 원인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출생아 2500~3300명중의 1명정도 발생하며 남녀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약 7% 정도에서 안와를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으로 성상이 견고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plexiform(총상)과 치즈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non-plexiform(myxomatous)을 볼 수 있다.

안와 신경섬유종의 경우 골조직이나 뇌신경, 중추신경등을 침범한 기능장애를 나타낼 수 있으며 외관상 돌출된 종괴와 두안면 골격의 변화로 심한 경우 코끼리 모양(elephantiasis)의 얼굴양상을 나